

‘학교 앞 추억’ 동네 문구점 사라진다

광주·전남 11년세 766곳 폐업 사양산업 전략 ‘준비물 없는 학교’ 원인...대형마트 등에 밀려

“학교 앞 문구점에서 번 돈으로 아들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시켰어요. 수입이 예전 같지 않다 보니 주변 동종업계 업주들도 떠나고 저 혼자 남았네요.”
광주·전남 초등학교 앞 문구점의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기성세대에게는 학교 앞 추억의 대명사였지만 유통 채널의 다양화, 학생 수 감소 등의 이유로 자취를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호남지방통계청 광주·전남 중사자 규모별 문구용품 소매점 현황에 따르면 2006년 1,586곳에서 2017년 820곳으로 대폭 줄었다. 지난 10여년 동안 총 766곳의 문구점이 문을 닫은 것이다.

문구점이 문을 닫는 건 여러 이유가 있다. 첫 손에 꼽히는 게 ‘준비물 없는 학교’ 정책이다. 학교에서 준비물을 일괄 구매해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과거보다 학생 수 자체가 적다는 점도 문구점 업계의 생존 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문구 소매업은 2015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으나 권고사항에 그친다. 전국구 규모 대형 프랜차이즈 문구점에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것도 현실이다.

문구점 주인들은 “시대 변화를 이해한다”면서도 정부 무대책에 아쉬움을 나타

냈다.
실제 이날 찾은 서구 광천초등학교에는 고길씨(69)의 문구점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과거 초등학교 부근에는 10곳의 문구점이 운영되다 운영난으로 고씨의 가게만 영업 중이다.



광주시 서구 광천초등학교 정문 인근에서 지난해 까지 운영하던 문구점이 유통 채널의 다양화, 학생 수 감소 등의 이유로 문을 닫았다.

고씨의 문구점도 부흥기 때는 하루 30만 원의 수입을 올렸지만, 요즘은 하루 1~2만 원도 채벌기 힘들다.

고씨는 “예전에는 학생 수도 많았지만 지금은 크게 줄었다”면서 “과거에는 체육복도 사고 실습세트 등도 구매했지만 요즘엔 학교에서 준비물을 지원하면서 문구점에서 구입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1990~2000년대 초반까지는 아이들이 문구점에서 게임도 하고 놀

이터처럼 지낸 반면에 요즘은 아이들이 줄어든 데다 놀거리가 많아지면서 문구점을 찾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구점을 닫지 이유에 대해 고씨는 “사회가 변화에 따라 문구점 또한 추억 속의 장소로 변하는 것 같다. 반 평생 아이들의 말동무로 일생을 바쳐왔던 문구점을 쉽게 문을 닫을 수 없다”며 “정부에서 아예 학교 앞 문구점을 없애려고 하는 건지 정책 방향이라도 알려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이나라 기자

영산강환경청 ‘환경법령 위반’ 업체 적발

19곳 27건...과태료·행정처분

영산강유역환경청은 14일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체를 특별 점검해 19개 업체에서 2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은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등 대기 분야가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출 허용기준 초과 등 폐수 분야가 4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취급시설 자체 점검 미실시 등 화학

물질 관련 3건, 부적정 처리 등 폐기물 관련 2건이 적발됐다.

영산강청은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등의 사항을 지자체 등에 통보했으며, 불법행위 정도가 무거운 5개 업체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석전 환경감시단장은 “지역의 환경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역민이 환경위해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찬 기자

전남대, 수산자원관리 대학원 개설

24일까지 원서접수

전남대가 “2020학년도 빅데이터 수산자원관리 대학원 협동과정”을 개설했다.

14일 전남대에 따르면 수산해양대학(학장 최상덕)이 개설한 ‘빅데이터 수산자원관리 협동과정’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 전문 인력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ICT분야와 수산자원분야의 융·복합 인재 키우기 위해 신설된 대학원 협동과정이다.

수해양과 4차 산업기술의 융합을 통해 수해양분야 현안 해결과 4차 산업기술 개

발 및 활용에 특화된 미래 현장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환경해양학과, 수산과학과, 생명과학·생명기술학과, 문화콘텐츠학과의 교수들이 참여해 신설됐다. 지원자에게는 재학 생활 국가 연구비 지원 및 해외 방문 교류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또 해양수산부 ‘ICT기반 수산자원관리 연구센터’ 과제가 수행되는 동안 다양한 취업 및 창업 지원도 받게 된다.

한편, 원서접수는 오는 24일까지 전남대학교 홈페이지(<http://www.jnu.ac.kr>)를 통해 가능하다. /조기철 기자

광주·전남 상반기 교권침해 100여건

올해 상반기 광주·전남지역 일선학교에서 100건이 넘는 교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상반기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 32건, 전남 76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접수됐다.

광주에서는 학생에 의한 침해가 24건, 학부모에 의한 침해가 8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상해·폭행 1건, 모욕·명예훼손 19

건, 반복적인 부당 간섭 5건 등이었다. 전남에서는 주체별로 학생 67건, 학부모가 9건이었다.

상해·폭행 6건, 모욕·명예훼손 32건, 부당 간섭 10건, 공무·업무방해 4건 등이다.

이찬열 의원은 “교권침해를 막기 위한 교원지원법이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교사들이 열정을 갖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은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광주 떠나는 중3...연 511명 순유출

특목고·자사고 등 몰려...인재 육성정책 시급

해마다 광주지역 중3 우수인재들의 타 지역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타 지역 외국어고, 자율형 사립고 등으로 몰리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인재 육성정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14일 광주시의회 김용집 의원이 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다른 시·도 고교로 진학한 광주 중3 학생은 특성화고 226명, 특목고 101명, 외국어고 89명, 자사고 28명, 과학교 26명, 국

제고 4명, 영재학교 1명, 기타 45명 등 모두 520명이었다.

반면 다른 시·도로 떠나는 중3 학생은 2015년 771명, 2016년 682명, 2017년 709명, 지난해 611명 등 올해까지 5년간 3,293명이다. 전출하는 학생이 전입하는 학생의 4.5배에 달했다. 학생들이 광주에 없는 외국어고, 자사고 등을 찾아 다른 시·도로 떠났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이 타지역 고교를 졸업한 후 수도권 대학에 진학할 경우 지역 인재

는 자연스럽게 감소된다는 점이다.

특히 상당수 학부모들은 최근 광주지역 학생들의 학업성적이 하향곡선을 나타내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한 학부모는 “교육감의 교육철학이 성적 우수 학생들을 타 지역으로 보내는 교육정책을 낳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성토했다.

김용집 의원은 “광주 학생이 다른 지역 고교, 대학을 졸업하고 그곳에서 정착하면 광주에서 성장하고 역량을 발휘할 인재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조기철 기자

남구 ‘오방 최흥중 기념관’

내일 개관식...3년 만에 결실

오방 최흥중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관이 3년 만에 문을 연다.

14일 남구청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후 4시 양림동 유진빌 기념관 옆 오방 최흥중 기념관에서 개관식이 열린다.

남구는 오방 최흥중 선생의 희생 정신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사업비 18억원을 투입, 지난 2016년 7월부터 기념관 건립을 추진해 왔다.

기념관 내부 전시실에는 (재)광주기독교 청년회 유지재단에서 기증한 오방 최흥중 선생의 유품 6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김종찬 기자

“내 용돈을 왜 같이 써?”



도리끼

○...10만원 때 문에 여자친구를 폭행한 20대가 경찰서행.

○...1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따르면 A씨(22)는 전남 오후 3시 40분께 서구 화정동 한 원룸에서 아버지가 준 용돈 10만원을 함께 사용하자고 말한

여자친구 B씨(21·여)에게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른 것.

○...A씨는 경찰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10만원은 내가 대학생활하며 사용할 용돈이다”며 “그걸 여자친구가 같이 쓰자고 말해 순간 화가 치밀어 폭발했다”고 후회. /김종찬 기자

풍암동, 동부 센트레빌, 근린상가, 매매/임대

- 서구 풍암동 664-6번지, 상가 1층 4거리 코너 800세대 APT 정문 앞
- 분양평수 50평, 실평수 36평 (기타 서비스 공간 10평 있음)
- 매매 - 7억원(대출 2억5천만 포함)
임대 - 보5천만원에 월세 350만원 문의. 010-6834-7400

